

‘실적부진’ 중소형증권사, CEO 교체… 위기를 기회로

다올투자 이병철·황준호 대표체제
한화투자 새 수장으로 한두희 선출
IBK투자 주총서 서정학 대표 선임
DB금융투자 신규 대표에 광복석
토스증권 김승연 대표이사 선임

지난해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었던 중소형증권사들이 주총에서 잇따라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도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 등으로 증권사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경영진 교체를 통해 위기극면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올투자·토스·한화투자·DB금융·IBK투자증권 등이 대표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24일 주총을 통해 전략부대표를 역임했던 황준호 다올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기존 이병철(회장)·이창근에서 이병철·황준호 각자대표체제로 변경했다. 지난해 부동산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난을 겪었던 다올투자증권은 이번 대표 교체로 분위기 쇄신에 나

섰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2일 한두희 한화자산운용 대표를 새 수장으로 선임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 438억원에 47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적자로 전환했다.

이같은 실적 부진에 한화투자증권은 트레이딩 본부장을 거쳐 한화자산운용 대표 취임 첫 해 영업수익을 달성한 한

두희 대표를 다시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한화투자증권의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서정학 IBK저축은행 대표를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해 IBK투자증권의 순이익은 2021년 대비 53.26% 줄어든 471억원에 그쳤다. IBK기업은행 계열 내부에서 글로벌금융과 투자금융(IB)의 전문가로 꼽힌 서정학 대표가 IBK투자증권의 수익 다각화를 달성하는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DB금융투자도 같은 날 열리는 주총에서 광복석 DB금융투자 부사장을 신규 대표로 선임할 예정이다. IB 부문 경력을 갖고 있는 광 부사장이 향후 IB 영업 확대에 집중하면서 수익원 다각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증권은 30일 주주총회에서 김승연 틱톡 동남아시아 비즈니스솔루션 GM(제너럴매니저)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악화로 투자자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어 증권사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따라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안정보다는 변화를 꾀하며 경영진 교체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관계자는 “올해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증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증권사 실적 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이라며 “증권사들은 수장 교체 등 변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1년새 시총 절반 ‘뚝’... 비상장주 ‘한파’

금투협 운영 K-OTC 시총 49% 감소
비바리퍼블리카, 고점대비 ¼ 수준
야놀자·컬리·현대오일뱅크 등 고전

올 들어 증시가 의외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K-OTC의 경우 시가총액은 최근 1년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의 여파로 모험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보수적 접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8일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비상장’에 따르면 해당플랫폼에서 기업가치 2위인 인기 비상장주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1월 24일 16만 980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서는 지난 달 중 5만원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3만원대 후반에 거래가 이어지면서 고점 대비 4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그동안 모았던 비

상장주중에서 연초 가격마저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다수다. 야놀자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4만 1500원에 거래됐으며, 1월에는 5만원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세가 보이며 이날 주가는 지난해말 거래가격과 동일한 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 컬리는 이날 장중 2만 2000원에 거래되면서 연초 대비 28.80% 하락했으며, 현대오일뱅크도 연초 4만 7500원에서 7.37% 내린 4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다른 비상장 주식거래소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도 인기 비상장 종목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 인기 거래 종목 1위인 두나무는 지난해 말 11만 5000원에 거래됐으나, 이날 6.96% 내린 10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 빙셀 운영사인 빙셀코리아 역시 같은 기간 13.76% 하락한 9만 4000원에서 거래 중이다. 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초 대비

8.39%, 22.60% 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K-OTC에서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K-OTC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3월말 31조 3144억원에 달했지만,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49.09% 감소했다.

비상장 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에서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수경 KB증권 연구원은 “투자 호황기 대비 감소한 신규 투자 유치금액뿐 아니라 투자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역시 비상장자에게 힘든 환경을 조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는 정책금융 자금 공급계획을 추가 보완하고, 혁신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모험자본 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며 “정책자금을 통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DL이앤씨

GTX-A 등 호재... 미래형 전원 주거단지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
총 800세대... 저층도 일조권 우수

DL이앤씨가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동, 총 80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99㎡ 706세대, 115㎡ 94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특별 계획구역 7곳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한국적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주거단지 조성될 계획이다.

동탄2신도시=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인덕원~동탄선, 트랩 등 굽직한 교통망 호재로 수도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공원과 녹지 면적이 넓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전세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거 쾌적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중저밀도 설계로 단지 내 쾌적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200% 미만의 용적률과 20% 미만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동간 간격을 크게 넓혔다. 이를 통해 저층세대도 우수한 일조권을 누릴 수 있다. 세대당 주차 대수도 1.79대에 달해 넉넉한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 /김대환 기자

분양가 상승률, 서울보다 지방이 더 가팔라

작년 12월 3.3㎡당 아파트 분양가 전국 평균 29% 상승, 서울은 13%
제주 70%, 울산 77% 등 가장 높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가팔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들이 많아 지방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60~85㎡의 기준 3.3㎡당 분양가는

1533만 5000원으로 지난 2020년 1월 분양가(1188만 9000원) 대비 29.0%(344만 6000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은 2684만 5000원에서 3035만 6000원으로 13.1%(351만 1000원) 오르면서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다. 광주와 대구 14.7%, 경기와 경남도 각각 16.8%, 16.2%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승폭은 10%대에 머물렀다.

경북(21.6%), 인천(23.0%), 전북(27.3%), 전남(27.5%), 충남(29.5%), 대전(29.7%)은 분양가 상승폭이 20%대를 기록하면서 평균 상승률에 근접했다. 특히, 충북(38.8%), 강원(42.4%), 부산(51.5%), 제주(69.9%), 울산(77.1%)의 경우가 파르르

올라 지방 분양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나 택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많아서 상승률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다. 이달에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 만에 2.05% 올린 1㎡당 194만 3000원으로 조정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항목으로 건설자재값과 노무비 등을 반영한다.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은 전반적인 건설원가 상승을 의미한다. /김대환 기자 kdh@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순자산 100억

신한자산운용, 상장 4개월 성과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배당다우존스’의 순자산이 상장 4개월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식형 월배당 ETF라는 처음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연초 이후 S&P 500 대비 비중이 높은 금융, 필수소비재 등의 부진으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자는 단기적인 하락 흐름을 매수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연초 이후 해당 ETF의 순자산이 약 800억원이 증가했으며,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최근 일주일간 140억원에 달하며 연금계좌를 포함하면 200억원 이상 유입됐다. /이영석 기자